

1 —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1. 3. 1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3·1운동사〉 머리말을 대신하여

3·1 독립만세운동은 한국 민족의 역사상에 던져진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동방의 백의민족, 우리 겨레가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허다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칼 부리를 맞대면서, 민족의 존영을 위해 피의 항쟁을 쉬어 본 적이 없었지마는, 국토의 전부가 남의 손에 들어가고, 국민 전체가 큰 환란을 당하기는 다만 일제에게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곡을 벗어나려고 대동단결로 울부짖었던 일은 그 전 어느 시대의 항쟁에서도 비길 수 없는 처절한 것이었으며,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자극된 민족의 자각이야말로 우리 문화사상사 위에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는 한 고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족의 굴욕은 죽음보다도 오히려 참기 어렵고, 자유의 희원은 생명보다도 차라리 강한 것임을 밝혀 증명해 보인 그 날의 운동은, 털끝 만한 타산도 없이 다만 순정한 출발 그대로, 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오직 확고한 신조 그대로, 그리고 또 한 발자국의 머뭇거림도 없이, 필경 겁냄이 없는 실천력 있음을 안팎에 나타내 보인 채, 민족사 내지 세계사 위에 영원히 끼친 불멸의 녹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왜 지나간 한때 우리 역사 위에 굴욕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가?

남의 침략도 침략이려니와, 그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약하고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지어진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일 그 운동이 없었다면 무엇으로써 역사의 문책에 대답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의 혈관 밑바닥에서부터 그 같은 힘이 용솟음칠 수 있었던 것

에 우리는 찬송보다도 차라리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돌발적으로 생겨난 힘이 아닌 것이다. 몇 천년 누려 온 역사의 밑바닥 흐름 속에 언제고 간단없이 전통 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안으로 혹은 밖으로, 정치적 또는 사상적으로, 압박과 침략에 견딜 수 없는 최후의 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반드시 활화산 같은 탄발력 있음을 나타내고야 말았던 것이니, 우리 역사상에는 이 같은 저항의 대목이 과연 한 두 번이 아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이란 것도 실상 따지면 역대의 민족 저항운동에 깊은 뿌리를 박은 전통적인 힘의 발로였다고 볼 것이며 다만 그것이 전에 없었던 다른 민족의 최고도 탄압이라는 치욕적인 정치적 사태에 부딪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일 따름이다.

경술년 국치의 기록을 지은 이후 10년 동안 총칼의 위협 아래서 얼른 보면 공포 밖에 없었고, 위축 밖에 없는 것 같았으되, 필경 민족의 혈관 속에 맥맥히 뛰고 있던 그 불굴의 피가 무서운 항쟁력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불멸의 의기를 입증해 보인 것만으로도 3·1독립만세운동의 의의와 가치는 높이 평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다시 그 위에 그 운동을 일대 획으로 민족사 위에 스스로 하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던 것까지 헤아린다면 3·1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스런 자랑스런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3·1독립만세운동 속에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자각을 가졌었고, 거기서 다시 새 문화, 새 교육, 새 사상을 향한 민족의 대행진이 새 출발을 얻었던 것이다.

언론기관이 창설되고, 우리말·우리글 운동이 전개되고, 새 교육기관이 왕성해졌음을 보거니와, 그 모든 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그 자체의 성격과 함

게 타동적이 아닌 자동적이었고, 기회적이 아닌 본격적이었으며, 또 변칙적이 아닌 원칙적이었으므로 그것을 통한 우리의 노선과 지향은 너무도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은 묵은 시대와 새 시대와의 사이를 뚫어 놓은 운하(運河)이었고, 어둠 속에서 민족 행진의 앞길을 비추는 조명탄(照明彈)이었음과 동시에, 새 문화·새 사조의 산실(産室)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이 3·1독립만세운동은 원칙적이요, 본질적이면서, 현실적이요, 활용적인 곳에 더 큰 뜻을 가진다. 민족의 살길을 일러 주는 큰 교본이요, 산 경전이며, 민족 행진을 바로잡아 주는 나침반(羅針盤)이요, 신호등이다.

그리고 민족의 비원을 새겨 놓은 참성단(塹城壇)이요, 금자탑이며, 민족집단을 지켜 주는 위수대(衛戍臺)요, 철옹성(鐵甕城)인 것이다. 지울 수 없는 민족의 발자국인 그대로 뚜렷한 이정표(里程標)가 되었고, 씻을 수 없는 민족의 피발림인 그대로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3·1독립만세운동이면서 현재의 3·1독립만세운동이요, 또 그대로 영원한 미래의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다.

그 시간 시간마다에 생동하고, 그 장소 장소마다에 유통되는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다. 한국 민족의 세포에 비고 스미어 마멸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될, 벗어날 수 없는 인과(因果)인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야말로 민족정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곤곤한 흐름이 마르지 않아야 하며, 또 민족 수련(修鍊)의 성화(聖火)이기 때문에 그 황황한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 몸이 그 흐름 속에 잠겨 있고, 그 불빛 속에 들어 있어, 그 것 때문에 우리 본성과 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보존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이 같이 우리 민족의 부활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치욕의 역사를 오히려 씻을 수 있었고, 더욱이 그것의 성격과 형태로 말할지라도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의 전 국토를 통하여, 또 지도층으로부터 학생·부녀자·무식 대중에 이르기까지의 전 국민이 한 때 한 덩이를 이루어 그 위에 맨 주먹으로 총칼 앞에 용감히 나섰던 무저항 운동이면서 추호의 후퇴도 굴복도 좌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3·1독립만세운동은 세계 어떤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도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이요, 전형적인 한국 민족 특유의 운동이 아닐 수 없었고, 또 우리들 자신의 전체 독립운동을 통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1895년 을미년 국모 시해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의병항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945년 민족 해방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동안 국내 국외에서 온갖 형태와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독립운동을 통하여 그것의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은 바로 이 3·1독립만세운동인 것이며, 또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전체의 독립운동을 불러 일으킨 사령탑 노릇을 한 운동이 또한 이 3·1독립만세운동이었던 만큼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이 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확히, 보다 더 신중히, 보다 더 세밀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 방면의 편찬 저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개괄적으로 다루어져서 소략한 것들이요, 또 그 위에 편협, 과장, 잘못된 곳을 지적할 수 있는 것들도 없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 측의 가감 조작된 기록을 그대로 맹신한 무비판적인 서술이나, 또 한갓 자료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정확한 3·1독립만세운동을 편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전면적인 세밀한 조사를 행하고 또 적 측의 재판기록까지 일

일이 대조하여 거기에 의거한 믿을 수 있는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그 날 우리 민족의 뜻과 모습과 움직임을 여실한 그대로 후세에 전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실로 뜻하는 바는 결코 한갓 충실한 기록 그것에서 의의를 찾자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란, 다만 부질없이 죽은 시간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개인이나 민족이 오늘과 내일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거기에 더 큰 뜻이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이 역사를 대서특기로 편찬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편찬하는 동안 다른 한 편으로 슬픔과 아픔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 있음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온갖 유혹의 검은 손에 사로 잡혀 마침내 그 날의 애국자가 다음 날에는 변절자가 되고 또 어제는 민족운동자 이었던 것이 오늘은 공산주의자로 변모되어진 사실 그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및 서명자들 속에서부터 남북 각처 운동의 일선에 섰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장을 더듬어 그 같은 과오를 저지른 사실들을 헤아려 볼 적에 우리는 먼저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고, 아니 그 보다는 오히려 어떤 분노조차 참지 못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춘추필법에 의한 단죄의 문자를 남기고도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그 같은 서술은 경솔히 다루기 어려운 일이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역사 편찬상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부득이 낱말이 지적하는 방법만은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먼저는 3·1 독립만세운동의 큰 뜻과 더불어 많은 애국자들의 피 흘린 운동 그것에서 같은 감명을 받는 것으로써 축하하며, 그 다음 그들 중에서 뒷날의 역사 행진을 욕되게 한 자들이 없지 않음을 서릿발같이 예민하게

주시하여 그 사실마저 우리들의 거울을 삼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러므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는 본시의 거룩한 뜻 그대로와, 또 사람들의 움직임과 변질, 변모 등 모든 사실 그대로를 모두 다 받아들여 선악 아울러 우리들의 생활의 준칙을 삼을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결코 어떤 역사 교단에서 설명하는 연대표도 아니요, 횡수나 따지는 축제일도 아니며, 또 입으로 외우는 주문(呪文)이나 회고하는 이야기 자료도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행할 것이요, 지속할 것이요, 생활할 것이다.

말살할 수도 없고, 말살되어서도 안 될 민족의 유일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신봉자, 전도자, 발휘자가 되어야 할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조국과 자유를 위한 정열과 염원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지식과 일체의 사고와 일체의 움직임이 오직 민족자주의 대원칙 속에서 여과(濾過)되어야 하며, 순화(醇化)되어야 한다.

이것이 3·1독립만세운동사의 편찬 취지요, 표준이요, 의의요, 가치다.

그 날의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함과 동시에 그 정신이 자손 만대를 통하여 민족의 계명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들의 본원이 있는 것이다.

1971년 10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노산 이은상